

Annie Armstrong
Easter Offering®

복음을 향한 발걸음

2025 PRAYER GUIDE

2025년 기도 가이드

북미 선교 기도 주간

Week of Prayer for North American Missions

요한삼서 1:7-8 (개역 개정)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간증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미 선교사가 아니라면 이 기도 가이드에 여러분의 얼굴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주님의 이름을 위해 나가는” 모든 간증에는 수천, 아니 수만 명의 등장인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는 “복미 선교사”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기도로 지지하고 그들이 갈 수 있도록 후원할 때 여러분은 선교사들의 간증 속 등장인물이 됩니다.

이번 주는 도시와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간증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이러한 간증을 위해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복미 선교사들의 복음 사역에 어떻게 힘을 보태고 있는지 더 자세히 보시려면 각 선교사에 대한 링크를 방문해 보세요.

복미

인구: 3억 8,600만 명

언어: 350개

잃어버린 영혼들: 2억 8,600만 명

미전도 종족 그룹: 161개



첫째 날

진정한 주님

유타 프로보

“정말 이들의 노래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데이비드 가스킨스는 사람들이 자신과 아내 사라가 교회 개척 선교사로서 섬기고 있는 유타 프로보의 모자이크 교회에 대해 물어볼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정말 이들의 노래를 들어보아야 해요.”입니다. 데이비드는 “매주 주일마다 눈물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더 열정적으로 들립니다.”라고 합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가 있는 프로보는 전 세계 몰몬교의 “심장부이자 중심지”라고 데이비드는 말합니다. 그는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몬교도를 사랑하고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개척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모자이크 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은 젊은 몰몬교도였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고 이제 이들은 복음에 반응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여기 있는 누군가가 몰몬교를 떠난다는 것은 정말 큰 대가 지불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직장을 잃게 됩니다. 가족들에게서도 외면당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이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들은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예수를 찾았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 제목

유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사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모자이크 교회의 데이비드와 다른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겸손,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데이비드와 사라가 어려운 곳에 살면서 섬기는 동안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아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둘째 날

빨래방으로 시작된 교회 미시간 플린트

레오와 미오샤 로빈슨 부부는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시간주 플린트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뜻밖에도 그들의 대답은 “빨래방”이었습니다. 싱글맘들은 빨래를 하려면 버스를 타고 시내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리고 때로는 100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기도 했습니다. 깨끗한 옷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사람들은 직장에 결근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족들은 제한적인 물로 세탁할 것인지 아니면 집에 물을 공급할 것인지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빈슨 부부는 플린트에 좋은 교회 (Good Church)를 시작하여 교회 아래층에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빨래방을 열었습니다. 이제 좋은 교회 빨래방 (Good Laundry)은 단순히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레오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저희는 빨래방 덕분에 침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놀랍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기도 제목

좋은 교회에서 새로운 리더를 육성하고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고통과 트라우마를 경험한 플린트 주민들에게 좋은 교회가 복음의 소망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처음 듣는 주변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AnnieArmstrong.com/Robinson에서 간증 다시 보기



셋째 날

영적 최전선 부대 노스캐롤라이나 스니즈 페리

조슈아 브라운이 섬기는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와는 다를 것입니다. 조슈아는 “저희에게는 저격수, 상륙 공격대, 정보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대가 아닙니다. 특수 작전을 위한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역학 관계입니다.”라고 합니다.

조슈아와 브리타니 브라운 부부는 해병대 캠프 르준 기지 (Marine Corps Base Camp Lejeune) 바로 외곽에 탑세일 필라 교회 (Pillar Church of Topsail)를 개척했습니다. 이 지역은 북미에서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이 가장 활발한 지역입니다. 조슈아는 “특수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은 항상 죽음을 넘나드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라고 합니다.

이제 조슈아는 복음을 전하고 새 신자들에게 침례를 줄 뿐만 아니라 군대가 그의 교회 성도들을 다른 곳으로 파견하고 재배치할 때 조슈아가 개척한 새로운 교회는 민간인들이 갈 수 없는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동기가 매우 강합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군대가 그들을 파견할 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포트 리버티 (Fort Liberty) [구 포트 브래그 (Fort Bragg)] 근처에 있는 페이엣빌 필라 교회 (Pillar Church of Fayetteville) 개척을 위해 파견된 팀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소외된 다른 군인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개척자들을 보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현재 리더들이 파견되거나 재배치됨에 따라 탑세일 필라 교회에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넷째 날

해병대원 아내들의 삶과 돌봄

노스캐롤라이나 스니즈 페리

해병대에는 ‘아내를 원했다면 신병 훈련소에 아내를 배정했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리타니는 이 말 뒤에 숨어 있는 유머와 냉혹한 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인 조슈아는 20년간 현역 해병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해병대 캠프 르준 기지 바로 외곽에 탑세일 필라 교회를 개척했을 때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목표는 계속해서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파병과 잦은 이동으로 인해 군인 배우자가 겪는 스트레스를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브리타니와 조슈아가 군인의 아내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다른 부부들의 일상적인 사역과는 다릅니다. 브리타니는 “남편과 아빠가 없는 많은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잔디를 깎아주거나 고장 난 물건이 있으면 수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들은 실질적인 도움과 모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섬김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 제목

실제적인 섬김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탑세일 필라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이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른 군 기지로 재배치되어 탑세일 필라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AnnieArmstrong.com/Brown2에서 간증 다시 보기



다섯째 날

영적 퍼즐 맞추기

브리티시 컬럼비아 랭글리

이들 삶의 모든 것은 복음 전도로 이어졌습니다. 크리스찬과 로라 로랜드 부부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고 복음 증거가 절실히 필요한 밴쿠버 교외 지역인 브리티시 컬럼비아 랭글리에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때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도착하기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크리스찬과 로라는 둘 다 외국에서 자랐습니다. 대학 때는 교회 개척자들과 함께 젊은이들을 선교지에 파견하는 북미 선교위원회 프로그램인 젠센드 (GenSend)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밴쿠버로 인도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텍사스에 있는 이들의 교회는 앞으로 밴쿠버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저희도 이곳의 많은 사람들처럼 해외에서 성장했고 이곳 젠센드에서 활동하였으며 저희 교회는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뒤돌아 보며 ‘아,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로라도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님께 나아오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

뉴송 커뮤니티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북미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지역에서 사역하는 데 필요한 필요들을 크리스찬과 로라에게 채워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들어야 할 예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AnnieArmstrong.com/Rowland에서 간증 다시 보기



여섯째 날

국경에서의 난민 사역 텍사스 라레도

이곳은 아마도 북미에서 가장 독특한 교실일 수 있습니다.

오스발도와 바네사 레르마 부부는 텍사스 라레도에 있는 샌드 릴리프 사역 센터 (Send Relief Ministry Center)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곳에서 레르마 부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난민 사역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네사는 “저희는 합법적으로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미국으로 오는 난민들을 알리는 사역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교회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난민들이 이곳에 오기 위해 거치는 과정을 보면서 항상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들은 고향에서 최악의 빈곤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걸어온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레르마 부부는 라레도 교회의 선교팀뿐만 아니라 지역 쉼터와도 동역하고 있습니다. 오스발도는 “우리는 모두 함께 식사, 위생 키트, 안전한 휴식 및 샤워 공간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교팀에게는 이것이 난민 사역의 최전선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교회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돕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라고 오스발도는 말합니다.

기도 제목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라레도의 난민들을 위해 섬기고 있는 오스발도와 바네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교팀이 라레도 지역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미 정착한 난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지역 교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AnnieArmstrong.com/Lerma에서 간증 다시 보기



일곱째 날

순회 선교사 와이오밍 바 넌

와이오밍주 바 넌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차를 몰고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상점도 없고 집도 없고 한동안 주유소도 없으니까 기름이 반쯤 남았다면 미리 주유할 것을 타일러는 권합니다.

하지만 타일러와 애슐리 마틴 부부가 교회 개척 선교사로 바 넌으로 이주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와이오밍에는 우편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203곳이 있는데 대부분 작은 마을입니다. 그 중 60개 이상은 교회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웃피터 교회입니다.

이제 타일러는 아웃피터 교회의 형제들이 외딴곳에 있는 작은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와이오밍은 너무 넓게 퍼져 있고 자원이 매우 적어서 교회 개척자들은 우리 교회 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 전역에 교회를 개척할 순회 설교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타일러와 애슐리 부부와 아웃피터 교회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봅니다. 타일러는 “교회가 없었던 마을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

아웃피터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인내와 끈기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와이오밍의 다른 교회들도 주변에 복음의 필요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덟째 날

반대편에서의 새로운 시작 와이오밍 바 년

트렌트 페더스톤은 과거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는 “제가 살아 있어서 다행입니다. 타일러와 애슐리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트렌트는 타일러와 애슐리 마틴 부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교회 개척을 위해 몇 년 전에 와이오밍 바 년으로 왔고 아웃피터 교회 (Outfitter Church) 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타일러는 “그 당시에는 모두가 트렌트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트렌트는 이 지역의 대부분의 술집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인구 2,986명의 바 년에는 모임을 위한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웃피터 교회는 그 지역의 바 겸 그릴 레스토랑인 행거(Hangar)라고 하는 곳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여기는 격납고로서 항공기를 두기 위한 바닥이 넓은 대형 건물이었습니다. 트렌트는 그때를 회상하며 “공간을 가르는 창문이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사람들이 바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라고 말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 호기심 많은 트렌트 페더스톤이 행거의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그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타일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현재 트렌트는 아웃피터 교회에서 침례받은 60명이 넘는 새 신자 중 한 명입니다. 트렌트는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고 이 모든 것이 타일러와 애슐리 부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기도 제목

와이오밍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것을 돕고 싶어 하는 트렌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없는 외딴곳에서 섬기고 있는 타일러와 애슐리 부부에게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웃피터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애니 암스트롱 부활절 선교 헌금 (Annie Armstrong Easter Offering)으로 헌금하신 여러분의 후원은 북미 선교사를 위해 사용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AnnieArmstrong.com

우편으로 헌금하기

North American Mission Board
P.O. Box 116543
Atlanta, GA 30368

참고: 메모란에 “AAEO”라고 적어 주세요

